

# virtual CONVERSATIONS <" "> CULTURES ,, PRESENTERS ,,

## Korean Culture, the Artworld, and Computer-Mediated Art

Sae Kwon Oh  
Art critic, Ph.D.

오 세 권  
(미술평론가, 미술학 박사)

Korea survived as a dynastic nation for more than five thousand years until Japan's invasion in 1910 ended its dynastic tradition, and Korea became a Japanese colony. In 1945, when Japan's surrender led to the end of World War II, Korea was reborn as an independent country.

Between 1945 and 1948, Korea existed under a United Nations trusteeship, and in 1948 a new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 The Korean War, which began in 1950 and continued through 1953, divided the country into south and north. With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the south became a capitalist country, while the north became a communist country with support from the then-Soviet Union.

National events, such as the downfall of the Chosun dynasty, the Japanese occupation, the birth of a new country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UN trusteeship and the Korean War, brought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to Korea.

Koreans' hard work in the following fifty years has transformed their country into "a nation of miracles." Thanks to its people's diligence, South Korea is also a leading country in the fields of electronics, automobiles, shipping and biotechnology and sustains semiconductor production technology, competing with more developed countries

한국은 약 오천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오래된 국가인데 왕조국가들을 통하여 그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1910년에는 일본의 침략으로 왕조 국가가 강제로 해체 되었으며 그들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이 항복하는 2차 세계대전의 종말로 인하여 신생독립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1945-1948년까지 약 3년간 신탁통치가 이루어지고 난 후 1948년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고, 1950-1953년에는 '한국전쟁' 을 겪고 '남' 과 '북' 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쪽은 미국이 중심되어 지원하는 자본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북쪽은 당시 소련(현:러시아) 등이 지원하는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되었던 것입니다.

왕조의 몰락, 일본제국의 강제점령 시기, 2차 세계대전 종말로 인한 신생 독립국, 강대국들에 의한 신탁통치, 한국전쟁 등 혼란과 격동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겪었지만 그 이후 약 50년 동안 한국인들의 노력은 한국을 기적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이 이룬 결실로 지금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 국가가 되었고, 전자, 자동차, 선박, 생명공학 등은 세계적인 생산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미술문화에 있어서는 전통 동양화의 표현으로 이어지다가 1909년에 처음으로 고희동이라는 화가가 서양화를 배우려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

# virtual CONVERSATIONS <" "> CULTURES ,, PRESENTERS ,,

such as the U.S. and Japan. In regard to Korean visual art, it has maintained the practice of Korean traditional painting. Artist *Hwee-Dong Ko* traveled to Japan to study western painting in 1909 and became the first Korean artist to use western painting techniques. Many artists followed his example by studying in Japan and Europe and introducing the methods and practices of western art back into their home country. However, the political and societal confusion described above prevented a growth of visual art in this country. "The Modern Artist Association" was established in 1957; this establishment assisted in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western abstract art and modern art into and within Korea.

In the Korean art world, the 1960s witnessed a flourish of En Formel. In the 1970s, minimalism was the main art movement. In the 1980s, neo-realism and postmodernism, which had been part of socialist art, took hold as a response to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In the 1990s, Korean artists followed the flow of the international art world, focusing on installations, media art, performance art and photography. Since the millennium, an international network in the art world, connecting all parts of the planet, has been developed. Korea certainly seems ready for take-off in the visual art field.

The launch of Korean media art was a fifteen-minute-long video work that artist *Hyun-Ki Park* created in 1977. Korean media art started in the video art genre and then expanded to computer-mediated art based on the popularity of the computer. The Kwangju Biennale, which started in 1995, served as a stimulator for the development

러 작가들이 일본과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서양의 미술 표현방식을 도입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치·사회적인 혼란이 이어졌기에 미술문화의 발전을 보지 못합니다. 1957년에야 비로소 한국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현대미술가협회>가 창립 됩니다. <현대미술가협회>의 창립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서양의 추상미술과 현대미술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어 확장되기 시작 합니다.

1960년대는 앙포르멜이 유행됩니다. 1970년대는 미니멀리즘의 표현이 유행을 합니다. 1980년대는 정치·사회적 변화에 의하여 사회주의 미술의 표현이었던 리얼리즘 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이 유행하게 됩니다. 1990년대는 설치, 미디어, 퍼포먼스, 사진, ... 등 세계 선진 미술계의 흐름과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 선진 미술계의 소식들이 실시간 동시에 연결되는 네트워크 체계가 구성되고 있으며, 2000년 중반기인 지금은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디어 미술의 출발은 박현기라는 작가가 1977년에 보여준 15분짜리 기록 비디오 작품입니다. 비디오 작품으로 시작한 한국의 미디어 예술은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오늘날은 미디어 예술의 표현에 있어서 컴퓨터가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미술표현의 확산에 직접적인 계기를 준 것은 1995년 시작된 <광주비엔날레>였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미술문화의 전위적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컴퓨터 아트 등을 소개하는 특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미술인들이나 일반 관람객들에게 컴퓨터 아트를 대량으로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virtual CONVERSATIONS <" "> CULTURES ,, PRESENTERS ,,

of computer-mediated art in Korea. The Kwangju Biennale demonstrated the international flow of the culture of visual art, and its special exhibition focusing on computer art introduced this new genre to art professionals and the general public. The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and the Busan Biennale both began in 2000; these exhibitions also promoted computer-mediated art, aiding in its settlement as a main art genre in the Korean art world.

Artists in this new field have focused on a wide variety of subjects: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workers' lives, the everyday lives of ordinary people, gender/identity, environmental pollution, feminism and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Today's South Korea has emerged as a leading country in the IT industry.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enables the production of top-quality electronic products, including LCD TVs, VTRs, cameras and cell phone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is actively taking place. The DMB broadcasting service that enables people to watch TV and movies and check stock information through cell phones began on December 1, 2005; this was the first service of its kind worldwide.

I believe that this kind of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will influence computer-mediated art in Korea and ultimately the Korean identity itself.

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이어지는 <서울 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등은 한국에서 컴퓨터 아트의 표현을 일반화 시켰습니다. 작가들의 표현내용도 다양합니다. 한국의 분단적인 정치적 상황, 노동자의 삶, 시민들의 일상, 성(Gender)의 정체성, 환경오염, 페미니즘, 재외 국민 노동자들의 인권,... 등 다양한 내용으로 작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중반기인 오늘날 한국은 IT 강국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LCD TV, VTR, 사진기, 핸드폰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교환이 세계 수위를 다투고 있으며, 핸드폰으로 증권, TV, 영화를 실시간 볼 수 있는 DMB 방송이 세계 최초로 2005년 12월 1일에 개통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미디어 예술의 표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전이 한국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해줄 것입니다.